

# “전북, 농생명식품 수도”

### 김윤덕 민주 도지사 경선 후보, 농식품벤처 육성 지원센터 구축 약속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선 김윤덕(전주 갑) 국회의원이 전북을 “농생명식품 수도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윤덕 의원은 20일 “농생명식품 산업의 디지털 전환 완성을 통해 잘 사는 농어촌, 농생명식품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전북형 농식품벤처기업 육성 지원센터 구축 ▲식품클러스터 글로벌 거점화 ▲디지털농사직설 구축 ▲어촌 관광단지 조성 ▲전북형 농민수당 지급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다분화 돼 있는 농업 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역할 재조정 등을 통해 전북형 농식품벤처기업 육성 지원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기후온난화 대응 시 농업연구센터와 동부권 나무연구소, 나무기술대학 설립을 통해 품종별, 수종별 맞춤형 농사직 설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격포 변산 등 전북이 가진 어촌관광자원을 활용해 불거리·먹거리·수산업 체험까지 아우르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농민과 협의를 통해 농민이 원하는 전북형 농민수당 지급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전북을 문화관광 수도로 만들 것”

### 안호영 민주 도지사 경선후보, 14개 시군 문화관광명소 조성 지원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안호영 경선후보는 20일 “전북도를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 수도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전북 문화관광수도 비전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위기 해소 및 국내외 관광객 흡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후보가 밝힌 문화관광 수도 비전은 크게 인프라 및 제도 구축, 14개 시군 문화관광명소 조성 지원, 전북관광공사 설립 등이다. 인프라 및 제도 구축 측면에서는 ▲전주·익산·군산·새만금 간 전철 운행 및 14개 광역교통망 확충 ▲새만금 문화컨텐츠산업 진흥지구 지정 및 선유도 관광특구 조성, ▲전주한옥마을 관광특구 도입 및 공연 전문극장 건립, ▲군산 폐철도 부지 무가산 관광특구 운영, ▲정읍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조성, ▲남원시 지리산 진환경 전기열차 도입 등이 제시됐다. 관광 명소화 및 관광산업 측면에서는 단연 새만금 K-문화클러스터 조성 공약이 꼽힌다. 새만금 내 문화개발부지에는 세계 최대 영화제사 스튜디오 및 K-팝 공연장이 설립된다. 또한, 새만금 레저용지에는 세계인이 찾는 해양 레저 마디나 시설과 경마공원, 꽃 축제장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부안 서해안 권 노을 해양공원 및 청호저수지 생태로, ▲임실호국원 메모리얼 파크 및 삼진강변 르네상스사업, ▲순창 밤제로 루지테마파크, ▲장수군 육십령 산림정원, ▲무주 구천 33경 관광 명소화, ▲진안형 지방정원 조성, ▲완주군 초남이형 지성역, ▲김제 만경장 둔치 생태습지 조성 지원 등이 명소화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고창 명사십리 연안정비 및 심원면 폐역지의 염습지 전환, 마한문화권 조성사업도 이에 해당된다. 안호영 후보는 이와 함께 전북관광공사를 설립 각지에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을 원패스투어 시스템으로 연결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머무르고 즐기는 전북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지역 관광협회가 관광산업 진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 “심사 기준 납득 불가... 민심 이반 공천배제”

### 최영일 순창군수 예비후보 민주 중앙당에 재심 신청



최영일 순창군수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최영일 예비후보는 “이번 공천배제는 지극히 편협되고,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라며 “심사 도덕성만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고무줄 잣대와 같아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영일 예비후보는 “재심은 정당인으로서 법으로 보장된 권리고, 마지막 수단이다”라며 “차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을 이겼다.

최영일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최영일 예비후보는 “이번 공천배제는 지극히 편협되고,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라며 “심사 도덕성만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고무줄 잣대와 같아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 캠프측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여론 조사를 보면 최영일 예비후보는 출구 1위를 했고, 최근 두차례의 상담원 면접방식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50%가 넘는 지지율을 보였다”면서 “여론조사 2위 후보와 34위 후보와의 차이가 20%가 되면 컷오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컷오프 되지 않고, 오히려 최영일 예비후보 한명만이 공천배제 됐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과만 부족해서 결정하는 처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위함을 자초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지난 2017년 사건은 이미 최영일 후보가 당시 도의원 출마를 통해 순창군민들의 평가를 받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천배제 원인의 주요인이 그 사건이라면, 순창군민이 애쓰게 키워온 젊은 정치인을 정당이 배제하는 조우의 정치적 실인행위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영일 예비후보의 컷오프 설은 공관위의 발표가 있기 전부터 떠돌던 소문이었다”면서 “박상 그 결과를 보니 후검은 비호색력이 관여한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유호상 기자

라고 말했다. 최영일 후보 캠프 관계자는 “재심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다”면서 “앞으로의 항방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순창지역의 정가는 이번 재심의 결과에 따라 요동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지역 민심도 재심결과를 지켜보며, 추이를 끈두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영일 예비후보는 당발원 공천을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을 받았고, 특히 지난 3월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순창군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1위의 득표율을 올리는 기염을 뽐냈다. /유호상 기자

## 민주 도지사 후보들, 부동산 투기문제 ‘공방전’

### 안호영측 “김 후보 의혹 공개적 검증 필요”

### 김관영측 “근거없는 흑색선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들이 부동산 투기문제에 네 가티브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안호영 후보측은 지난 18일 JTV 주관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후보인 김관영 전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관영 후보측의 이윤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관영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당의 강화된 부동산 검증을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다”며 “안 후보는 지난 19일 전주MBC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관영 후보의 관련된 답변에 대해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측은 “공개된 내용에 따라 2020년 당시 김관영 후보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와 전북 군산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지역구였던 군산의 주택을 매각해 판교에만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소수 ‘뽕밭한 한 채’만을 남기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과 전북을 위해 봉사했다는 김 후보가 수도권 주택을 매각한 채 전북에 주소만 두고 도지사 출마하겠다는 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 후보측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보유와 매매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의 철저하고 공개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윤상 대변인은 “지금 도민과 당원들은 전북정치의 대통합과 혁신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안 후보도 대통합과 혁신의 대열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 김병운 교육감 예비후보 사퇴... “천호성 지지”

김병운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20일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로써 이번 전북교육감 선거는 김윤태·서거석·천호성·황호성 예비후보 등 4파전으로 치러진다.(가나다 순) 김 전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저를 지지해 준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이번 6.1 지방선거에 전북교육감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한 번 조직이 완성되면 깨지지 않게, 이번 당선자가 4년이 아니라 8년, 12년까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투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전 예비후보는 사퇴 입장문에서 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한 천호성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천 후보가 선생님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을 가장 잘 알고 해결해 나갈 유일한 분이라며 지지를 표했다. /장은성 기자

# “과거 농진청장 재직 당시 장점마을 불법비료생산 눈감아”

### 이원택 의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 국민들께 사과 해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농촌진흥청장으로서 재직하던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금강농산을 단속·점검했으나, 점검결과 이상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비료생산업체인 금강농산을 총 7차례 점검했으나, 점검결과 모두 이상없음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대법원은 불법비료를 생산한 금강농산 대표이사과 공장장 등을 대상으로 한 최종심에서 유죄를 확정판 가운데, 1심과 2심의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금강농산의 불법행위도 사실임을 인정했다. 1심과 2심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따르면, 금강농산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까지 2년간 14회에 걸쳐 2,208톤 300킬로그램 총 11만 415포의 불법원료사용 비료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발생으로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익산장점마을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근 비료공장에서 폐비료로만 사용해야 하는 담배찌꺼기인 연초박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불법사

## 한완수 임실군수 예비후보 “친환경 농산물 적극 지원”

임실군수 선거에 출마한 한완수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전 전북도의원)는 20일 “공공기관에서 임실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선도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임실의 친환경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공공급식으로 구매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매년 친환경 농가와 농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농산물에 대한 가공시설은 있으나 친

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설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시설 증대와 함께 친환경 비료등을 지원해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완수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임실 친환경 농가 지원사업으로 ▲임실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공공비축미 친환경쌀 보조금 지원, ▲공공분야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친환경 농산물 먹거리 지원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유호상 기자